

교 회 회 표

신원준 예배
한국인문 앙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3:12)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장삼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지난 주요예배 메시지]

새로운 시작(수 5:8~12)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벳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넌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언고로 정신을 잃었더라”(수 5:1).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들은 조상들이 홍해를 갈아서 건넌 것만 같지만 요단강을 갈아서 건너왔다. 그 놀라운 일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의 물을 말라 버리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다.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던 조상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요청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여러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갈아탈 책임이 요청되고 있었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일할 뿐 세월을 살아왔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모세를 보내셨을 때, 그들은 다हे된 노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출 6:9). 홍해를 갈아서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멸망받는 광경을 체험했음에도(출 15:1~2),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언약을 받는 체험까지 있었지만(출 24:6~8), 그들은 광야의 갈에서 너무나 빨리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했다(민 11:32~33).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수 5:2~3). 그것은 여리고 성벽의 작곡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꺼이 할례를 행함으로써(수 5:3),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냈었다(수 5:4, 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과거의 수치스러운 신분과 함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수치스러웠던 행보를 모조리 지워버리셨다(수 5:9).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 시대가 열리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수 3:11), 새로

운 세대는 과거에 광야에서 사십 년을 방황하던 때와 다른 불신앙의 시간을 벗어나고(민 14:29~30, 33), 가나안 땅은 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생명의 언약을 갹신한 백성이 되었다(신 30:6).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을 참관하였으나, 다시금 새롭게 고치시고 일으키셔서 여전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자비와 은총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진 다(골 2:11~12).

이제 이들에게 애굽과 관계되었던 수치는 소멸되었다. 그들의 목에서 노예의 멍에를 벗기신 하나님(레 26:13), 애굽을 이룩하신 것이 수치일 뿐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사 30:5), 다시는 열국과 만민으로 하여금 수욕과 수치를 받지 않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렘 36:15)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어리석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로 오늘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시며, 한영혼 한영혼을 향하여 새로운 시작을 요청한다. 무덤에서 사활동안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와 죽음을 치료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노예와 우리의 수치스러운 허물을 씻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마 11:28).

할례를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정월 십일 요단강을 건너 후(수 4:10), 길갈에 진 쳤던 이들은 즉시로 할례를 행하였고, 사후 뒤인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수 5:10).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수 5:12). 이렇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절기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이다(레 19:9). 그 날은 오직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벗어나고, 세상의 거짓을 깨닫고 새롭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주어질 찬탈이 될 것이다.

[말고 오묘한 그림들 - 금요일회]

십자가의 승리

1부 예수 그리스도

1장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심

- I. 세상을 바꾸는 신령한 메시지
- II. 성육신하신 역사적인 사실
- III. 성육신과 부활

2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 I. 그 이름 '예수'
- II. 그 이름 '그리스도'

1.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뻐주시는 직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사장(레 8:2, 시 133:2), 왕(시 110:3), 그리고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다(왕상 1:9). 애굽과 구원의 종파(사 45:1)는 기쁨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구약 전체의 모든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레 1:1, 렘 33:33~34).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직분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권위를 일임하여, 그들이 되게 하신다(렘 23:5, 계 1:6). 바로 그리스도로 일미하여 얻게 된 이러한 은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마 26:7)이다. 그리스도로 일미함은 이러한 영의 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골 1:25~26).

2. 세 단계로 펼쳐지는 영성론 그리스도의 내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성론 내면을 한데에 드러하지 않고 세 단계로 펼쳐서 표현하는데, 우선 신자로서의 내면을 말씀하고 있다(신 18:15~18). 그 다음으로는 모든 마지막 날에 오는 이들을 말씀하고 있으며(마 11:2),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다(마 13). 이처럼 세 단계로 펼쳐진 그리스도의 내면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뚜렷하게 알려준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품 속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마 1:23)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셨다(마 13:35). 그리고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질자(마 9:13)와 살피기를 가졌으며(마 9:12, 요 2:23) 동해와 화성 같이 되고 제자(마 13:44)와(마 13:45)와(마 13:46)와(마 13:47)와(마 13:48)와(마 13:49)와(마 13:50)와(마 13:51)와(마 13:52)와(마 13:53)와(마 13:54)와(마 13:55)와(마 13:56)와(마 13:57)와(마 13:58)와(마 13:59)와(마 13:60)와(마 13:61)와(마 13:62)와(마 13:63)와(마 13:64)와(마 13:65)와(마 13:66)와(마 13:67)와(마 13:68)와(마 13:69)와(마 13:70)와(마 13:71)와(마 13:72)와(마 13:73)와(마 13:74)와(마 13:75)와(마 13:76)와(마 13:77)와(마 13:78)와(마 13:79)와(마 13:80)와(마 13:81)와(마 13:82)와(마 13:83)와(마 13:84)와(마 13:85)와(마 13:86)와(마 13:87)와(마 13:88)와(마 13:89)와(마 13:90)와(마 13:91)와(마 13:92)와(마 13:93)와(마 13:94)와(마 13:95)와(마 13:96)와(마 13:97)와(마 13:98)와(마 13:99)와(마 14:1)와(마 14:2)와(마 14:3)와(마 14:4)와(마 14:5)와(마 14:6)와(마 14:7)와(마 14:8)와(마 14:9)와(마 14:10)와(마 14:11)와(마 14:12)와(마 14:13)와(마 14:14)와(마 14:15)와(마 14:16)와(마 14:17)와(마 14:18)와(마 14:19)와(마 14:20)와(마 14:21)와(마 14:22)와(마 14:23)와(마 14:24)와(마 14:25)와(마 14:26)와(마 14:27)와(마 14:28)와(마 14:29)와(마 14:30)와(마 14:31)와(마 14:32)와(마 14:33)와(마 14:34)와(마 14:35)와(마 14:36)와(마 14:37)와(마 14:38)와(마 14:39)와(마 14:40)와(마 14:41)와(마 14:42)와(마 14:43)와(마 14:44)와(마 14:45)와(마 14:46)와(마 14:47)와(마 14:48)와(마 14:49)와(마 14:50)와(마 14:51)와(마 14:52)와(마 14:53)와(마 14:54)와(마 14:55)와(마 14:56)와(마 14:57)와(마 14:58)와(마 14:59)와(마 14:60)와(마 14:61)와(마 14:62)와(마 14:63)와(마 14:64)와(마 14:65)와(마 14:66)와(마 14:67)와(마 14:68)와(마 14:69)와(마 14:70)와(마 14:71)와(마 14:72)와(마 14:73)와(마 14:74)와(마 14:75)와(마 14:76)와(마 14:77)와(마 14:78)와(마 14:79)와(마 14:80)와(마 14:81)와(마 14:82)와(마 14:83)와(마 14:84)와(마 14:85)와(마 14:86)와(마 14:87)와(마 14:88)와(마 14:89)와(마 14:90)와(마 14:91)와(마 14:92)와(마 14:93)와(마 14:94)와(마 14:95)와(마 14:96)와(마 14:97)와(마 14:98)와(마 14:99)와(마 15:1)와(마 15:2)와(마 15:3)와(마 15:4)와(마 15:5)와(마 15:6)와(마 15:7)와(마 15:8)와(마 15:9)와(마 15:10)와(마 15:11)와(마 15:12)와(마 15:13)와(마 15:14)와(마 15:15)와(마 15:16)와(마 15:17)와(마 15:18)와(마 15:19)와(마 15:20)와(마 15:21)와(마 15:22)와(마 15:23)와(마 15:24)와(마 15:25)와(마 15:26)와(마 15:27)와(마 15:28)와(마 15:29)와(마 15:30)와(마 15:31)와(마 15:32)와(마 15:33)와(마 15:34)와(마 15:35)와(마 15:36)와(마 15:37)와(마 15:38)와(마 15:39)와(마 15:40)와(마 15:41)와(마 15:42)와(마 15:43)와(마 15:44)와(마 15:45)와(마 15:46)와(마 15:47)와(마 15:48)와(마 15:49)와(마 15:50)와(마 15:51)와(마 15:52)와(마 15:53)와(마 15:54)와(마 15:55)와(마 15:56)와(마 15:57)와(마 15:58)와(마 15:59)와(마 15:60)와(마 15:61)와(마 15:62)와(마 15:63)와(마 15:64)와(마 15:65)와(마 15:66)와(마 15:67)와(마 15:68)와(마 15:69)와(마 15:70)와(마 15:71)와(마 15:72)와(마 15:73)와(마 15:74)와(마 15:75)와(마 15:76)와(마 15:77)와(마 15:78)와(마 15:79)와(마 15:80)와(마 15:81)와(마 15:82)와(마 15:83)와(마 15:84)와(마 15:85)와(마 15:86)와(마 15:87)와(마 15:88)와(마 15:89)와(마 15:90)와(마 15:91)와(마 15:92)와(마 15:93)와(마 15:94)와(마 15:95)와(마 15:96)와(마 15:97)와(마 15:98)와(마 15:99)와(마 16:1)와(마 16:2)와(마 16:3)와(마 16:4)와(마 16:5)와(마 16:6)와(마 16:7)와(마 16:8)와(마 16:9)와(마 16:10)와(마 16:11)와(마 16:12)와(마 16:13)와(마 16:14)와(마 16:15)와(마 16:16)와(마 16:17)와(마 16:18)와(마 16:19)와(마 16:20)와(마 16:21)와(마 16:22)와(마 16:23)와(마 16:24)와(마 16:25)와(마 16:26)와(마 16:27)와(마 16:28)와(마 16:29)와(마 16:30)와(마 16:31)와(마 16:32)와(마 16:33)와(마 16:34)와(마 16:35)와(마 16:36)와(마 16:37)와(마 16:38)와(마 16:39)와(마 16:40)와(마 16:41)와(마 16:42)와(마 16:43)와(마 16:44)와(마 16:45)와(마 16:46)와(마 16:47)와(마 16:48)와(마 16:49)와(마 16:50)와(마 16:51)와(마 16:52)와(마 16:53)와(마 16:54)와(마 16:55)와(마 16:56)와(마 16:57)와(마 16:58)와(마 16:59)와(마 16:60)와(마 16:61)와(마 16:62)와(마 16:63)와(마 16:64)와(마 16:65)와(마 16:66)와(마 16:67)와(마 16:68)와(마 16:69)와(마 16:70)와(마 16:71)와(마 16:72)와(마 16:73)와(마 16:74)와(마 16:75)와(마 16:76)와(마 16:77)와(마 16:78)와(마 16:79)와(마 16:80)와(마 16:81)와(마 16:82)와(마 16:83)와(마 16:84)와(마 16:85)와(마 16:86)와(마 16:87)와(마 16:88)와(마 16:89)와(마 16:90)와(마 16:91)와(마 16:92)와(마 16:93)와(마 16:94)와(마 16:95)와(마 16:96)와(마 16:97)와(마 16:98)와(마 16:99)와(마 17:1)와(마 17:2)와(마 17:3)와(마 17:4)와(마 17:5)와(마 17:6)와(마 17:7)와(마 17:8)와(마 17:9)와(마 17:10)와(마 17:11)와(마 17:12)와(마 17:13)와(마 17:14)와(마 17:15)와(마 17:16)와(마 17:17)와(마 17:18)와(마 17:19)와(마 17:20)와(마 17:21)와(마 17:22)와(마 17:23)와(마 17:24)와(마 17:25)와(마 17:26)와(마 17:27)와(마 17:28)와(마 17:29)와(마 17:30)와(마 17:31)와(마 17:32)와(마 17:33)와(마 17:34)와(마 17:35)와(마 17:36)와(마 17:37)와(마 17:38)와(마 17:39)와(마 17:40)와(마 17:41)와(마 17:42)와(마 17:43)와(마 17:44)와(마 17:45)와(마 17:46)와(마 17:47)와(마 17:48)와(마 17:49)와(마 17:50)와(마 17:51)와(마 17:52)와(마 17:53)와(마 17:54)와(마 17:55)와(마 17:56)와(마 17:57)와(마 17:58)와(마 17:59)와(마 17:60)와(마 17:61)와(마 17:62)와(마 17:63)와(마 17:64)와(마 17:65)와(마 17:66)와(마 17:67)와(마 17:68)와(마 17:69)와(마 17:70)와(마 17:71)와(마 17:72)와(마 17:73)와(마 17:74)와(마 17:75)와(마 17:76)와(마 17:77)와(마 17:78)와(마 17:79)와(마 17:80)와(마 17:81)와(마 17:82)와(마 17:83)와(마 17:84)와(마 17:85)와(마 17:86)와(마 17:87)와(마 17:88)와(마 17:89)와(마 17:90)와(마 17:91)와(마 17:92)와(마 17:93)와(마 17:94)와(마 17:95)와(마 17:96)와(마 17:97)와(마 17:98)와(마 17:99)와(마 18:1)와(마 18:2)와(마 18:3)와(마 18:4)와(마 18:5)와(마 18:6)와(마 18:7)와(마 18:8)와(마 18:9)와(마 18:10)와(마 18:11)와(마 18:12)와(마 18:13)와(마 18:14)와(마 18:15)와(마 18:16)와(마 18:17)와(마 18:18)와(마 18:19)와(마 18:20)와(마 18:21)와(마 18:22)와(마 18:23)와(마 18:24)와(마 18:25)와(마 18:26)와(마 18:27)와(마 18:28)와(마 18:29)와(마 18:30)와(마 18:31)와(마 18:32)와(마 18:33)와(마 18:34)와(마 18:35)와(마 18:36)와(마 18:37)와(마 18:38)와(마 18:39)와(마 18:40)와(마 18:41)와(마 18:42)와(마 18:43)와(마 18:44)와(마 18:45)와(마 18:46)와(마 18:47)와(마 18:48)와(마 18:49)와(마 18:50)와(마 18:51)와(마 18:52)와(마 18:53)와(마 18:54)와(마 18:55)와(마 18:56)와(마 18:57)와(마 18:58)와(마 18:59)와(마 18:60)와(마 18:61)와(마 18:62)와(마 18:63)와(마 18:64)와(마 18:65)와(마 18:66)와(마 18:67)와(마 18:68)와(마 18:69)와(마 18:70)와(마 18:71)와(마 18:72)와(마 18:73)와(마 18:74)와(마 18:75)와(마 18:76)와(마 18:77)와(마 18:78)와(마 18:79)와(마 18:80)와(마 18:81)와(마 18:82)와(마 18:83)와(마 18:84)와(마 18:85)와(마 18:86)와(마 18:87)와(마 18:88)와(마 18:89)와(마 18:90)와(마 18:91)와(마 18:92)와(마 18:93)와(마 18:94)와(마 18:95)와(마 18:96)와(마 18:97)와(마 18:98)와(마 18:99)와(마 19:1)와(마 19:2)와(마 19:3)와(마 19:4)와(마 19:5)와(마 19:6)와(마 19:7)와(마 19:8)와(마 19:9)와(마 19:10)와(마 19:11)와(마 19:12)와(마 19:13)와(마 19:14)와(마 19:15)와(마 19:16)와(마 19:17)와(마 19:18)와(마 19:19)와(마 19:20)와(마 19:21)와(마 19:22)와(마 19:23)와(마 19:24)와(마 19:25)와(마 19:26)와(마 19:27)와(마 19:28)와(마 19:29)와(마 19:30)와(마 19:31)와(마 19:32)와(마 19:33)와(마 19:34)와(마 19:35)와(마 19:36)와(마 19:37)와(마 19:38)와(마 19:39)와(마 19:40)와(마 19:41)와(마 19:42)와(마 19:43)와(마 19:44)와(마 19:45)와(마 19:46)와(마 19:47)와(마 19:48)와(마 19:49)와(마 19:50)와(마 19:51)와(마 19:52)와(마 19:53)와(마 19:54)와(마 19:55)와(마 19:56)와(마 19:57)와(마 19:58)와(마 19:59)와(마 19:60)와(마 19:61)와(마 19:62)와(마 19:63)와(마 19:64)와(마 19:65)와(마 19:66)와(마 19:67)와(마 19:68)와(마 19:69)와(마 19:70)와(마 19:71)와(마 19:72)와(마 19:73)와(마 19:74)와(마 19:75)와(마 19:76)와(마 19:77)와(마 19:78)와(마 19:79)와(마 19:80)와(마 19:81)와(마 19:82)와(마 19:83)와(마 19:84)와(마 19:85)와(마 19:86)와(마 19:87)와(마 19:88)와(마 19:89)와(마 19:90)와(마 19:91)와(마 19:92)와(마 19:93)와(마 19:94)와(마 19:95)와(마 19:96)와(마 19:97)와(마 19:98)와(마 19:99)와(마 20:1)와(마 20:2)와(마 20:3)와(마 20:4)와(마 20:5)와(마 20:6)와(마 20:7)와(마 20:8)와(마 20:9)와(마 20:10)와(마 20:11)와(마 20:12)와(마 20:13)와(마 20:14)와(마 20:15)와(마 20:16)와(마 20:17)와(마 20:18)와(마 20:19)와(마 20:20)와(마 20:21)와(마 20:22)와(마 20:23)와(마 20:24)와(마 20:25)와(마 20:26)와(마 20:27)와(마 20:28)와(마 20:29)와(마 20:30)와(마 20:31)와(마 20:32)와(마 20:33)와(마 20:34)와(마 20:35)와(마 20:36)와(마 20:37)와(마 20:38)와(마 20:39)와(마 20:40)와(마 20:41)와(마 20:42)와(마 20:43)와(마 20:44)와(마 20:45)와(마 20:46)와(마 20:47)와(마 20:48)와(마 20:49)와(마 20:50)와(마 20:51)와(마 20:52)와(마 20:53)와(마 20:54)와(마 20:55)와(마 20:56)와(마 20:57)와(마 20:58)와(마 20:59)와(마 20:60)와(마 20:61)와(마 20:62)와(마 20:63)와(마 20:64)와(마 20:65)와(마 20:66)와(마 20:67)와(마 20:68)와(마 20:69)와(마 20:70)와(마 20:71)와(마 20:72)와(마 20:73)와(마 20:74)와(마 20:75)와(마 20:76)와(마 20:77)와(마 20:78)와(마 20:79)와(마 20:80)와(마 20:81)와(마 20:82)와(마 20:83)와(마 20:84)와(마 20:85)와(마 20:86)와(마 20:87)와(마 20:88)와(마 20:89)와(마 20:90)와(마 20:91)와(마 20:92)와(마 20:93)와(마 20:94)와(마 20:95)와(마 20:96)와(마 20:97)와(마 20:98)와(마 20:99)와(마 21:1)와(마 21:2)와(마 21:3)와(마 21:4)와(마 21:5)와(마 21:6)와(마 21:7)와(마 21:8)와(마 21:9)와(마 21:10)와(마 21:11)와(마 21:12)와(마 21:13)와(마 21:14)와(마 21:15)와(마 21:16)와(마 21:17)와(마 21:18)와(마 21:19)와(마 21:20)와(마 21:21)와(마 21:22)와(마 21:23)와(마 21:24)와(마 21:25)와(마 21:26)와(마 21:27)와(마 21:28)와(마 21:29)와(마 21:30)와(마 21:31)와(마 21:32)와(마 21:33)와(마 21:34)와(마 21:35)와(마 21:36)와(마 21:37)와(마 21:38)와(마 21:39)와(마 21:40)와(마 21:41)와(마 21:42)와(마 21:43)와(마 21:44)와(마 21:45)와(마 21:46)와(마 21:47)와(마 21:48)와(마 21:49)와(마 21:50)와(마 21:51)와(마 21:52)와(마 21:53)와(마 21:54)와(마 21:55)와(마 21:56)와(마 21:57)와(마 21:58)와(마 21:59)와(마 21:60)와(마 21:61)와(마 21:62)와(마 21:63)와(마 21:64)와(마 21:65)와(마 21:66)와(마 21:67)와(마 21:68)와(마 21:69)와(마 21:70)와(마 21:71)와(마 21:72)와(마 21:73)와(마 21:74)와(마 21:75)와(마 21:76)와(마 21:77)와(마 21:78)와(마 21:79)와(마 21:80)와(마 21:81)와(마 21:82)와(마 21:83)와(마 21:84)와(마 21:85)와(마 21:86)와(마 21:87)와(마 21:88)와(마 21:89)와(마 21:90)와(마 21:91)와(마 21:92)와(마 21:93)와(마 21:94)와(마 21:95)와(마 21:96)와(마 21:97)와(마 21:98)와(마 21:99)와(마 22:1)와(마 22:2)와(마 22:3)와(마 22:4)와(마 22:5)와(마 22:6)와(마 22:7)와(마 22:8)와(마 22:9)와(마 22:10)와(마 22:11)와(마 22:12)와(마 22:13)와(마 22:14)와(마 22:15)와(마 22:16)와(마 22:17)와(마 22:18)와(마 22:19)와(마 22:20)와(마 22:21)와(마 22:22)와(마 22:23)와(마 22:24)와(마 22:25)와(마 22:26)와(마 22:27)와(마 22:28)와(마 22:29)와(마 22:30)와(마 22:31)와(마 22:32)와(마 22:33)와(마 22:34)와(마 22:35)와(마 22:36)와(마 22:37)와(마 22:38)와(마 22:39)와(마 22:40)와(마 22:41)와(마 22:42)와(마 22:43)와(마 22:44)와(마 22:45)와(마 22:46)와(마 22:47)와(마 22:48)와(마 22:49)와(마 22:50)와(마 22:51)와(마 22:52)와(마 22:53)와(마 22:54)와(마 22:55)와(마 22:56)와(마 22:57)와(마 22:58)와(마 22:59)와(마 22:60)와(마 22:61)와(마 22:62)와(마 22:63)와(마 22:64)와(마 22:65)와(마 22:66)와(마 22:67)와(마 22:68)와(마 22:69)와(마 22:70)와(마 22:71)와(마 22:72)와(마 22:73)와(마 22:74)와(마 22:75)와(마 22:76)와(마 22:77)와(마 22:78)와(마 22:79)와(마 22:80)와(마 22:81)와(마 22:82)와(마 22:83)와(마 22:84)와(마 22:85)와(마 22:86)와(마 22:87)와(마 22:88)와(마 22:89)와(마 22:90)와(마 22:91)와(마 22:92)와(마 22:93)와(마 22:94)와(마 22:95)와(마 22:96)와(마 22:

GOD OF ISRAEL (Isaiah 43:16~21)

*"... Because I have given waters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To give drink to My chosen people. "The people whom I formed for Myself, Will declare My praise."*

Our God, the God of Israel, is a Creator God. He formed Israel, His children, and He called them by name. He told them, "you are Mine"(v. 1). He is our Redeemer, Lord, and Holy One(v. 14&15). In our history of redemption, God personally and directly enters human life through His Word. He shows us that He is the One who acts in our past, present, and future. He is the One who blesses and favors His own people through His word. The Bible contains many phrases, such as, "Thus says the Lord", that confirm His word. As we focus on Jesus, this 5th Sunday of Lent, let's remember that He is God, and that His involvement as our Redeemer. Lord, and Holy One is immeasurable. Let's think about our God.

Our God, the God of Israel, freed His people from the power of Egypt. The book of Exodus tells us that He parted the Red Sea, and the book of Joshua tells us that He parted the Jordan River. Today's Bible message begins, "Thus says the Lord, who makes a way through the sea and a path through the mighty waters"(v. 16). Our God took for Himself a nation from within another nation by trials, by signs and wonders and by war and by a mighty hand and by an outstretched arm and by great terrors(Dt. 4:34). He got involved. He did it to show His people that He is "the Lord, He is God: there is no other besides Him"(Dt. 4:35). This is a wonderful mystery, a wonderful miracle. We should continually praise Him.

The Israelites saw God's power. They experienced His involvement. They felt His outstretched arm and mighty hand. They should've followed and praised Him, but instead they sinned against Him. At Mt. Sinai, they worshipped a calf (Ex. 32:7&8). In the land of Canaan, they feared other gods, they walked in the customs of other nations, and "built for themselves high places in all their towns, from watchtower to fortified city" (2 Ki. 17:9). Certainly the Promised Land was to be holy, but the Israelites entered it and defiled it. "They set for themselves sacred pillars and Asherim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green tree"(2 Ki. 17:10). Like Israel, God gives you wonderful love. He truly gets involved with you, but what do you do? Do you still insist on your will and way? Do you still hold on to earthly treasures? Do you continually make your own gods? Even though Israel greatly sinned, God still rebuked them and punished them. In spite of everything, He still sent His prophets to fix and correct their sinful thinking, and to lead them toward Him. That's our God.

Our God, the God of Israel, freed His people from the power of Babylon. Only the true God can predict the future with total accuracy, "It is I who says of Cyrus, He is My shepherd! And he will perform all My desire, and he declares of Jerusalem, 'She will be built,' and of the temple, 'Your foundation will be laid'"(Is. 44:28). In this case, the return from exile to rebuild and inhabit Jerusalem was a prophecy made through Isaiah about 150 years before it happened. Jeremiah also prophesied this message (Je. 25:12). It's actual occurrence is recorded in 2 Chronicles 36:22&23 and Ezra 1:1-2. God promised to destroy Babylon and bring His people back to Jerusalem, a new thing that, when compared to most other wonders of Israel's history, would make those seem as nothing. God saved Israel from Egypt and from Babylon. We are talking about real history, our history. God actually did these things. He told Israel.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I will bring your offspring from the east, and gather you from the west. I will say to the north, 'Give them up' and to the south, 'Do not hold them back.' Bring My sons from afar and My daughters from the ends of the earth,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and whom I have created for My glory, whom I have formed, even whom I have made"(Isa. 43:5-7). Amen!

God collected Hi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He assembled them in Egypt, in Babylon, and He still is gathering them from every place. Who are these people? Everyone born of God, for "Whoever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and whoever loves the Father loves the child born of Him"(1 Jn. 5:1). God gets involved with His people. He told Israel, "You whom I have taken from the ends of the earth, and called from its remotest parts and said to you, 'You a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and not rejected you'"(Isa. 41:9). That's our God!

Our God, the God of Israel, freed His people from the power of sin. We are free. God wants to make us holy, cleanse our sin, and form us to be His people. He desires that we praise Him, "The people whom I formed for Myself will declare My praise" (v. 21). He sent His only Son to die, so that we could have our sins washed away. Jesus died so that we could live holy lives. Not only that, God made us His children. He made the church for each believer and for all believers. He made us righteous through faith, "so that He might present to Himself the church in all her glory, having no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she would be holy and blameless" (Eph. 5:27). He makes us perfect children through Jesus Christ. Indeed, He finalized His plan of salvation through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Through Jesus Christ, we are made clean and righteous, we receive an inheritance of eternal life. That's our God!

I'm challenging you today to think about your God. Is the God of Israel your God? Is the God who delivered His people from Egypt, Babylon, and all worldly powers your God? Is the God who frees human beings from sin your God? Is the God who makes you His own and declares that you are His, is that your God? Is the God who makes you holy, righteousness, and gives you eternal life, is that your God? Jesus desired to make all these things happen. He went to Jerusalem to take the cross. Are you following Him? 🙏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 43:16~21)



김성완 목사

“...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하신 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조성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으며,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요, 여호와이시며, 거룩한 자이십니다(14,15절).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삶 속에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과 은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라”와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인 오늘, 예수께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간섭하심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자기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가 종패를 가르셨음을 말해주며, 여호수아서에서는 요단강을 가르셨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침령을 내고”(16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시험과 시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구하셨습니다(신 4:34).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하나님은 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라”고 이렇듯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출 32:7,8).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다른 신을 두려워하였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따랐으며, “모든 성읍에 땅도로부터 전교한 관을 이드로록 산장”을 세웠습니다(왕하 17:9).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뜻을 주장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또 계속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커다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꾸짖으셨고, 벌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된 생각을 바로잡고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향하도록 그들을 인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권세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며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진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사 44:28).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정착하게 되는 이 사건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인 150년 전에 이미 이사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이러한 메시지를 예언하였습니다(렘 25:12). 이 실제적인 사건은 역대하 36:22,23과 에스라 1:1~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올 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해졌던 다른 놀라운 이적들과 비교해 볼 때, 그리 대단한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반하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놀라고 남방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네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사 43:5~7). 아멘!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셨고, 바벨론에서 모으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세상 모든 곳에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가 불러모으시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녀로 삼아주시라”(요일 5:1). 하나님께

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관여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싶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사 41:9).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오,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며, 우리로 그의 백성이 되도록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21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을 대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워졌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각 신자들과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엢 5:27).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자녀로 만드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여지고 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영생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애굽과 바벨론과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뿐 아니라,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며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를 따르고 계십니까? ■

옛 페르시아제국의 후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총천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생소한 나라가 아니다. 이란은 지리적으로는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라크의 옆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1970년대 말 호메이니의 회교 혁명과 팔레비 국왕의 망명 등으로 현대사 속에 알려졌다. 또한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우리의 수도 서울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역삼각 주변에 '테헤란로'란 이름이 생겼으며, 하나님이나 다닐과 함께 하실 때 바사(페르시아)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속에도 등장한다. 이렇듯, 이슬람의 종교적 자부심과 옛 페르시아의 문화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이들은 이슬람 정권의 원리주의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거부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이란을 빠져나와 우리나라에 이방인 근로자로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의 몇 명이 총천교회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성삼위 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아들도 갖지 않으시며, 인간이 되실 수도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선지자들을 모두 인정하고, 모세 5경(토라)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높은 선지자 중의 하나로 인정한다. 또한 이들은 최후의 심판과 사후의 삶을 믿으며, 의로운 행위에 의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들이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태어나면서 배우고 알았던 근본적인 믿음을 깨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없다. 여기에 엄청난 부담과 함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철벽이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국에 들어가는 아무런 신앙적인 대항이 없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설사 한국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그국에 알려지면 생명의 위협과 함께 이들의 친족중심의 사회에서 추방되어 철저하게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란 형제들의 이야기에도 한 번의 무력감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이러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며, 인간적인 친분을 쌓더라도 결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변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그렇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생명의 감동과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

진 생명의 말씀뿐인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앞이 안보이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기에 이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란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물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르게 알았던 예수님을 전할 때 심각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을 듣고, '전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50% 믿었지 만 이제는 55% 믿는다'는 한 이란 형제의 고백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총천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로 동참을 부탁한다.

"옛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에게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복음이 섬기 위치게 하소서!" (권영진 간사)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도미니카 공화국 16교구 6지역 단기선교단(3월 31일~4월 10일)

1. 도미니카 공화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탐입 모두가 믿음과 생령이 증언하여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품게 하소서.
2. 사역 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3. 모든 사역을 생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소서.
4. 탐입 각 지체가 서로 섬기며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사역 기간동안 교통편, 건강 등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15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총회는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다.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7월 중순경 몽골로 10명의 대원들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을 적어 주세요.

탐입끼리 하나가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며, 받은 달란트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기 기도합니다. 몽골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성적이 급하고 거절이 빠른 대화가 무척 어렵지만 그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오랜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생겨난 헛된 위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재로 살고 싶은 성경구절과 그 이유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생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만을 전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김승곤
9교구 7지역장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16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카자흐스탄의 최북단 도시인 오스케멘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스케멘은 알타이에서 기차로 23시간이 걸리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무슬림보다는 정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경책을 달라고 했지만 가지고 간 성경이 부족해 다 주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곳으로 8월 12일에서 8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다시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2. 교구 위원회와 간사 부무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장 중심의 단기 선교가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단기 선교의 결과로 교회에 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런 토대가 있었기에 올해 1,500명의 단기 선교사의 파송이 계획될 수 있었겠지요. 연 초까지만 해도 지역장들이 탐입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 상황을 많이 험기워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매주 모여 기도하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장 중심의 단기 선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탐입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먼저 개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작년 3월까지만 해도 삼 삼백 명의 탐입들을 모으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 천명이 넘는 선교 사역자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일선 일꾼들이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방운은
9교구 1지역장

(엄정섭 기자)

제35대 장로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달욱 (3 88-723)	장철환 (11 1063)	김송곤 (9 2852)
함철주 (12 80-465)	윤석민 (17 84-559)	정선현 (17 870)
안석현 (5 2745)		

제16대 안수집사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김해길 (8 93-192)	신전수 (2 84-133)	권오준 (4 87-591)
심화민 (10 95-143)	김재춘 (13 83-103)	한만혁 (17 92-905)
이인수 (16 85-465)	강종목 (11 89-1164)	김재홍 (17 85-340)
김양준 (12 89-507)	박석봉 (15 93-1178)	김원호 (16 81-305)
장두형 (2 95-236)	최세진 (1 95-232)	김윤환 (17 82-7)
윤종극 (7 85-919)	윤성열 (6 95-688)	윤선한 (1 86-126)
장철환 (9 89-928)	장금줄 (12 3360)	나승은 (4 89-109)
윤병식 (7 92-1321)	김상철 (9 1409)	강석화 (15 93-626)
윤상철 (16 89-743)	이기옥 (7 95-1527)	이세영 (6 1310)
이정태 (3 87-85)	강신천 (13 82-218)	김종훈 (5 95-402)
김영환 (14 10)	박원화 (4 81-900)	김철남 (8 88-418)
최민석 (4 95-18)	김정근 (5 97-178)	현준봉 (16 93-98)
이경재 (3 97-417)	장미규 (1 89-1045)	이양선 (12 4911)
백봉선 (5 89-750)		

제44대 권사 피택자(이름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신순 (1 86-126)	고영혜 (6 1723)	고진순 (14 81-762)
고춘대 (15 93-759)	김금순 (16 81-305)	김문자 (12 86-25)
김성아 (1 96-188)	김순옥 (11 80-567)	김순자 (3 86-396)
김옥순 (15 89-575)	김외숙 (17 85-705)	김정순 (4 81-777)
김정원 (12 92-905)	김지서 (2 79-578)	김지희 (5 91-317)
김표자 (8 89-234)	남은희 (10 4998)	문인란 (2 88-20)
민행님 (7 2320)	박미서 (13 83-653)	박애희 (10 2716)
박용순 (12 3103)	배은경 (17 85-340)	서귀순 (8 3304)
송신옥 (3 86-490)	신조자 (11 80-683)	안경자 (1 88-717)
오정남 (6 2819)	유정자 (8 79-435)	은연선 (13 3242)
이금숙 (4 85-956)	이복희 (11 4102)	이수자 (11 4243)
이애나 (14 81-5)	이영숙 (4 82-415)	이영순 (9 87-33)
이의집 (12 90-687)	이정남 (9 89-1032)	이현순 (1 86-822)
이현주 (10 80-56)	이형주 (7 93-978)	장순옥 (5 95-1420)
장진옥 (1 82-115)	전옥숙 (15 527)	정복순 (2 84-1305)
정순옥 (2 84-40)	정영배 (10 1588)	정영숙 (9 81-257)
정은애 (17 81-985)	조용기 (4 89-1023)	조원월 (13 2744)
최금숙 (12 50)	한금자 (8 3669)	허영자 (15 94-350)
허은숙 (4 86-245)	홍복기 (7 84-1090)	홍현기 (17 85-424)
황진순 (1 92-1174)		

*피택자는 (장로)피택자는 부부동반)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배다너홀에서 피택자교육 개강예배를 드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삶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글을 통해, 젊은이들이 믿음과 실제 생활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여 '주간 중현'에서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100명씩 대상으로 믿음과 실제 생활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에는 조장 및 임원인 40명, 세례를 받은 평회원 40명,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임부원 20명이 응하였다.

세례를 받지 못한 초신자들이 질문에 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을 통한 죄에서의 해방 등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 목상이 성도의 의무라고 적었다. 청년들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성경적인 답변을 한 것은 예배와 그룹 성경공부, CMT훈련 등을 통해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문문을 통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예배와 그룹 성경공부에 감동이 있다고 답변해 주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믿음과 실제 생활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기사에서,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여러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고민'이라고 밝히기도,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믿음과 실제 삶의 문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그 죄가 떠나지 않아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전 9:2,3), 어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방법이 있어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결단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고후 4:13). 이것은 설문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94명의 청년이 '예수님이 구주이며 모든 것'이라고 설문을 작성하고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8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86명이 '복음전파가 성도에게 필수'라고 하고는 '복음을 전하느냐'는 질문에 33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역시 94명이 '성도라면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하고는 22명만이 '매일 말씀묵상을 한다'고 했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바를 바로 행하라.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잘 믿어도 완전히 영화된 삶을 살아서, 전혀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지체자도, 명철자도, 기능자도 이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전 9:11).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믿음대로 행하기로 결단할 때(전 9:10), 성도는 주님과 동행을 체험하고 주를 기쁘게 하며(고후 5:9,10), 그 거리감을 좁혀갈 것이다. (편집)

토기장이와 토기

성경과 학업 (1)

한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2년 동안 회교 사원에 다녔다. 그러면서 훌륭한 회교도들을 다수 만났다. 관용이란 타인의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므로 자신과 다르게 사고하고 다른 견해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가? 그는 여러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자이지만, 그의 생각이 그의 글과 일치한다면, 단언하건대, 그는 구원을 알지 못한다. 물론 인간은 다른 견해를 선택할 수 있고, 서로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포용해주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 즉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하며 그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밭에서 저 회교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집지 아니함이라"(히 4:2). 성경적인 화집이란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므로 하나님과 화합하고, 한 구주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죽이려고도, 그대로 두려고도 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는 자에게 전쟁이 아닌 사랑으로, 그들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시편묵상

134편-송축

나의 간증

내 삶의 전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순례의 여정에 네 달는 첫 발자국을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노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 안에서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삶을 묘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러내시며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여정의 끝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시 134:2). 회개로 시작된 제자의 길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송축이란 복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을 굽히사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사 우리를 구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복 주심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은혜)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감정이 찬양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리던 손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우리는 그분을 송축하도록 창조되고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송축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신실로 인해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우리의 찬양 여부를 좌우할 수 없는 요소이며, 우리는 감정 이상의 것,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야 합니다(요 4:24).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시 134:2).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려라"(고전 13:10). 궁극적인 송축은 순례의 길의 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끄시며 완성하실 순례의 길에서도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엡 1:3-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임혜원 기자)

술, 담배와 방탕함 속에 살다가 중원교회 대학부에 있는 딸의 인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하여 복음을 듣고 영접한 뒤로 삶이 변하였고, 지금은 방탕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신앙생활에 내 삶에 다 마치며 집중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만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다녀와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됐고, 또 복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위임 목사님의 말씀과 신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삶의 모든 초점을 선교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 처음 나갔을 때 능숙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를 매년 나갈 것인데, 나갈 때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회를 들어갔고, 지금 신학회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말씀으로 단련하여져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간 것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평신도 선교사로서 단기선교 나갈 때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재미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머리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김성택 (집사, 1교구)

다음 주일 찬송

79장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가의 곡은 헨리 캐리(Henry Carey)가 작곡했으며, 영국의 국가곡이고, 미국의 애국가 '내 조국 주님의 나라'의 곡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작시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1650년에 퍼낸 '스코틀랜드 시편가(Scottish Psalter)' (다윗의 시 운율역) 중 시편 41-80편을 담담했던 토마스 크로퍼드(Thomas Craufurd)가 운율 구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1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팔들이 번하고 물결이 일어나 신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2절 아편이 떠돌고 나라를 모아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사의 한탄 발사하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3절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로 새삼에 나라를 그대게 하시니 새삼의 창림이 쓸데 없네
4절 보신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고성이 심하고 그대이 극하니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이 찬송은 4분의 3박자 곡이다. 4분음표의 길이를 충분히 해서 힘있게 해서 레가토로 노래해야 하며,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 (시 46:1)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찬양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봉환' 성도를 소개합니다



사일에 실패하여 마음이 공허하고 앞길이 막막하여 믿음을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초등학교생인 아들의 담임 선생님 전도로 중원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심정이 복잡할 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느꼈고, 그 후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또 대꾸 지할참사 보도를 접하면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과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은 예전에는 지할참사 등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심히 못 마땅했는데, 지금은 '믿으면 저렇게 전도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매 주일 새가족부 집회에서 같은 반에서 만나는 성도들간의 기도의 교제가 기억에 남으며 나도 늘 같은 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한숙정 통신원)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8	최미연	1	청년2부		289	최희정	8	청년2부	오규택(8)	300	이삭	19	외선부	윤병식(7)
279	손재명	1	청년2부	박장윤(1)	290	노혜림	8	청년1부	박명열(10)	301	모니라	19	외선부	이규옥(7)
280	박복남	2	청년2부		291	유현순	11	청년2부		302	수미서	19	외선부	조종민(7)
281	박선희	2	청년2부	황병영(2)	292	오효을	9	청년2부	송요한(1)	303	강부경	19	청년2부	
282	안숙순	5	청년2부		293	김정열	12	청년2부	이선옥(12)	304	김영을	19	청년1부	
283	민옥동	6	청년3부	최숙진(7)	294	황은진	13	청년1부	이진규(6)	305	김지영	19	청년1부	이종민(15)
284	장웅길	7	청년2부	하두연(5)	295	최은미	13	청년2부	이진규(6)	306	이지영	19	청년1부	한세희(19)
285	박정석	7	청년2부	이가옥(7)	296	이경자	14	청년3부	최희림(12)	307	이영주	19	청년1부	이보담(5)
286	박원주	7	청년2부	윤성희(7)	297	박영숙	14	청년2부	최귀환(7)	308	황병희	19	대학부	김상진(17)
287	이병현	6	청년2부	박희설(16)	298	박세일	17	청년2부	김효정(17)					
288	성영옥	8	청년2부	박영준(8)	299	김미영	19	청년1부	이철희(3)					

* 중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교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

내 마음 가득
기쁨이 되네 내,
사랑, 나의 남아
나, 이제
그대를
바라보노라.

연연히 사랑한
내 가슴
내 마음에
그리움이 되어.

단, 한탄 신앙으로서
나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그대를
생각에
담아보노라.

아주 가까운이
구세주이시듯
시원스러이,
신자의 빛스런
돌무덤을 받으신
주님이시여.

이제 가져로이
그대 나아오라.

깊이여, 진리여
생명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여,
구주 나의 사랑이시여...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믿음질할새"(마 28:8)
"네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김정수 (집사, 전년 2학)

주님처럼

임 미 순 (유아부 이규리엄마)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원 나 현 (초등부 2과 2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하자”

유아부로 전입하고 3주쯤 지나자, 이제 두 돌 된 아이가 주보를 보고 큰 소리로 읽었다. 아니, 읽은 게 아니라 외우는 것이었다.

애틀이때는 매일 조는 줄 알았는데(규리는 대단한 늦잠꾸러기라 매일 11시까지 잔다).

집에 오면 찬송도 하고 선생님과 공과공부 시간에 배운 얘기도 한다. 아이가 만드는 세상에 동참하는 일이란 얼마나 고되면서도 싱그러운 것인지 모른다. 수없이 건네는 아이의 손짓, 얼굴짓, 몸짓, 말짓과 함께 보낸 시간 뒤에는 으레 육체의 고단함이 따라 안타깝지만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늘 감사한다.

아이들은 정말 스몬지 같아서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항상 선한 것만 배우는 것은 아닌 듯하다. 요새는 반항기에 들었는지 누가 말한 하면 “아니야, 틀렸어”하고 우기며 10살 차이는 언니와 제법 말쑥하다.

이런 것을 보며 주님의 마음이 알 것 같다. 때로 말쑥을 부러도 한없이 사랑스럽고, 다른 길로 가도 기다리고, 그러다 정 안되겠으면 때로 치시는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즐거운 ‘거울 성경학교’ 날. 나는 ‘후다다’ 빨리 준비를 하고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가서는 ‘라랄랄라’ 찬양도 하고, 성경말씀도 배우고, 역할극도 했다. 그런데 우리반은 나까지 해서 두 명밖에 안 왔네? 다른 반은 많이 온 것 같았다. 우리반 선생님께서 두 명밖에 안 와서 슬프시겠다.

하지만 이를 동안 재미있게 역할극도 하고 게임도 하였다. 그 중에서 역할극이 제일 재미있었다. 역할극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믿는 사람들이 꼭박박는 내용이 나왔다. 성경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 것이다. 분반공부에서 배운 성경말씀이 생각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믿어서 ‘거울 성경학교’에 나왔으면 이 말씀처럼 돼서 좋았을 텐데.

하나님!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이기를

김 명 화 (유년부 3과 2반 정찬우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가방 메고 집을 나서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는 걱정과 염려를 달아 오는 하루를 주님께 위탁하는 아침기도를 올린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물로 허락하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너, 엄마 아빠에게 많은 기쁨과 감사의 제물이었구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기쁘구나. 이제 막 제대로 된 말들을 할 다섯 살 즈음, 영의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너는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배우고는 우유 한 잔을 마시며 “엄마, 예수님이 출렁출렁 하시겠네”하고 우유에 예수님이 잠길까 걱정하며 말했었지. 하나님께서 우유 만물을 지으셨음을 알고 난 후에 길가의 만물에 한 손이, 지나가는 바람, 많은 하늘을 보고서 “아빠,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라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했을 때, 엄마, 아빠는 감 감동스러웠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나, 초등학생이에요”라고 말했을 때는 “별써 이렇게 컸구나”하고 놀라워했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자 애기했을 때, 네가 기꺼이 헌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어서 기쁘구나. 그리고 네가 찬양대원으로도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는 네가 친구들과 만나 다지는 카드 모으기와 컴퓨터 게임, 로봇만화애 정신을 온통 빼앗긴 것 같아 속상하지만, 엄마는 네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즐겨하며,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손해 보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방학이 되면 선교를 떠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배에 대해 그 어느정도도 전하며,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로 자라나길 기도해.

주 안에서 잘 준비되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엄마는 기도한다. 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은 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실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곧바로 풀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 적혀 있으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1:31).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저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 앞에서 타락해 있습니다.

“어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보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사단은 뱀을 통해서 이렇게 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매번 꼬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조상들은 회개할 수 있는 때에 도리어 핑계를 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니 내가 돌 돌을 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여자를 보고, “이

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와 칭하리라 하니라”(창 2:23).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 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말합니다. 하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3). 우리는 이렇게 타락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타락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늘 찬양하면서요. “예수 사랑하심은 기록하신 말일세.”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강 지 나 (초등부 5과 5반)

교 회 소 식

알림

1. 장로, 안수집사·권사 피폐자 명단은 5월을 참조하세요

모임

1. 권사 전체 예배회
일시: 2월(수) 오후 1500
장소: 장미리교회
2. 권사 전체 임원회
일시: 2월(수) 오후 1부 예배후
장소: 장미리교회
3. 안수집사 예배회
일시: 6월(다름주) 15:30
장소: 교육관 201호

결혼

1. 이성진 군(이흥우 안수집사, 노혜희 집사의 아들, 4교구) 박성준 양(박기철 씨, 주희숙 씨의 딸/ 4월 1일(금) 12:00, 장미리교회)
2. 최재복 군(최낙근 장로, 김진경 권사의 아들, 서부제일교회)와 이영진 양(이영일 안수집사, 장신자 권사의 딸, 17교구) 4월 5일(토) 13: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발생

1. 김승근 은하집사
김승근 은하 집사의 남편, 13교구/ 3월 19일 별세, 3월 20일 장례
2. 장영태 은하집사
조국 권사의 남편, 장제희 성도와 장인희 집사의 부친, 권순안 성도와 권순구 집사의 사부, 17교구/ 3월 21일 별세, 3월 24일 장례
3. 정재복 은하집사
김한선 권사의 남편, 장종훈 집사와 정경임 성도의 부친, 박정환 권장과 정경호 성도의 사부, 14교구 대관후/ 3월 21일 별세, 3월 24일 장례
4. 김희철 성도
김희철 성도의 부친, 8교구 구의 2구/ 3월 22일 별세, 3월 24일 장례
5. 고교목회
사역자 성도의 딸, 5교구/ 3월 24일 별세, 3월 26일 장례

전반연방전

1. 한용희 집사, 도수자 집사
연방 459-4745

◆ 감사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기 간: 2003년 3월 ~4월
2. 대 상: 각 부서 회계(전도)제 제외
3. 장 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서류: 시산표 (2002년 12월, 2003년 1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장

2003년도 제2차 학술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4월 13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교포론 (김교장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론 (이정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최진환 목사)	교육관 304호		
4월 2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고창환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이수근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자 (안정희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4월 27일 (주일)	전반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여적 성당예배, 분당)		유아 세례식 (오호 3기, 장미리교회)			

4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김포)					수요일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4	6	이형수	이태식	임무현	김종호	안동현	양현원	구영각
	13	장동하	김단웅	장종훈	이 훈	최윤덕	표광원	이금순
	20	홍승모	박덕암	장종훈	이병욱	장종순	이정택	김문순
	27	장태두	김의철	신상수	이광재	엄영철	김진철	최병호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31(월)	1(화)	2(수)	3(목)	4(금)	5(토)	6(주일)
설교자/기도자	장현민/장태두	장현민/고승관	장현민/안선현	장현민/임창식	장현민/이형호	김교성/홍순애	김용덕/이옥주

매일 담당안내 (4/2-4/6)

날짜	예배	매일 전찬양	사회	기도	설
4/2 수요일	4/2 수요일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4/2 수요일	4/2 수요일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4/3 금요일	4/3 금요일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4/4 주일 I	4/4 주일 I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4/4 주일 II	4/4 주일 II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4/4 주일 III	4/4 주일 III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4/4 주일 IV	4/4 주일 IV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4/4 주일 V	4/4 주일 V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4/5 주일	4/5 주일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이영수

예배시간 변경안내

4월말부 수요일부 예배와 금요일장집회 시간이 30분씩 늦추어집니다. 따라서 4월 2일 수요일부 예배와 4월 4일 금요일장집회부터는 예배와 집회가 각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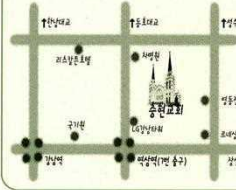
1. 모범부서 미화부(남)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참가 추천서(교회간)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종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매년예배주 총현교회

총현기도의향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선포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되어 주소서.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총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원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6.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총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7. 단기전망을 통하여 총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축복과 열매를 향하여 구원의 빛을 밟는 중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요지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근 이병학
최대원 임필립 강모용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경민 조인재 김중구 최무길
김천재 이창호 차진득 김광남 이종석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기훈 이계광
김성환 김충현 이경우 김대우 황영일
한승규 김영주 김관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현 최기훈 김대우 최기훈 이계광
박덕암 이태식 정태두 박종규 권명옥
최종환 배준식 정영달 이철호 박찬식
최기훈 노영현 박관구 정영길 신상수
강철형 고재승 김영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경진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극근
김교성 이수근 이윤진 안창덕 방종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호 고광환
김광근 위관정 김학한 김경주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 전도조사
정현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현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대순 김경연
조옥자 강덕철 김경진 강기철 최문실
전은희 김영순 김경자 이숙영
■ 신앙감독 강기주 ■ 전담회화 서준석
■ 전담회화 서준석
■ 단기선교사 강기원(소방) ■ 협력선교사 하효섭(이민)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수, 화, 목요일 동시통역 예배) 오후 11:00	본 당
	IV 오후 1:00(아침 7시부터) 오후 3:00	본 당
	V (월요일과 수요일 예배)	본 당
전야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회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교회예배	오후 10:30	본당 앞출발

기도원 차량운행
월, 목요일 10:00 / 월, 목, 오후 7:00
(종로경찰서 앞 출발)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10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1층
유 년 부	I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II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I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II 오전 10:30	교육관 301호
중 동 2부	I 오전 9:00	교육관 407호
	II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I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II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I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II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한자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서 문화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